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 및 경제복지감

A Study of Urban Employed Housewives' Dynamics of Family System and Their Economic Well-Being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전공
교수 계선자
동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환경학과
부교수 강혜경
강사 유을용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Sunja Kye

Dept. of Child & Family Environment, Dongeu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ekyoung Kang

Lecturer : Eulyong Yo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We analyzed the dynamics of the family system and the economic well-being by utilizing the socio-demographic objective economic and subjective economic factors of urban employed housewiv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Seoul and three other major cities. The subjects consisted of employed housewives in these areas who were currently cohabiting with their spouses and had at least one child. The preliminary and main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etween November 12, 2001 and February 27, 2002, and 254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e applied the frequency, average, percentage, Cronbach's α , simple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PC WIN.

Corresponding Author: Eul-yong Yoo,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3-12 ChungPa-Dong 2Ka YongSan-Ku, Seoul, Korea Tel: 82-2-534-3448 E-mail: jsyu7@chollian.ne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f the availability of life information was 3.21.

Second, when the stability of husband occupation increased, the dynamics of family system worked very well.

Third, the dynamics of family system didn't have any influence on the economic well-being.

주제어(Key Words): 취업주부 (employed housewives), 가족체계역동성(the dynamics of family system), 경제복지감(economic Well-being)

I. 서론

우리나라는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절대적 빈곤의 해결과 함께 가전제품, 자동차 등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다양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향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1%도 못 미치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국민일보, 2004. 8. 5)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실업률은 현재 3.3%를 웃돌고 있다(세계일보, 2004. 8. 10).

가계는 국민경제와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발전하는 역동적 체계를 감안할 때 이와같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의 경제상태에 의한 생활만족도의 차이 또는 생활의 질 차이를 규명한 많은 연구들(박미균, 계선자, 1994; 이미숙 등, 2000)을 볼때 경제적 상태가 인간과 가족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가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의 악화와 여성의 자아실현의 일환,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취업은 많은 주부들 사이에서 환영받고 있으며 적지 않은 주부들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인데 이 중 기혼여성 비율은 미혼여성의 비율에 비교할 때 다소 높은 편이다(국민일보, 2004. 5. 29). 이와같이 기혼여성이 취업전선에 가담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 주택마련, 자아실현 등이 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보탬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추측된다. Foster 등

(1981)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일시적 취업이 점차 영구직종으로 변화함에 따라 탁아비, 교통비, 의상비, 가전기구의 비용이 추가되고 있지만 맞벌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의 증가로 이를 충당하고 남음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취업은 가정 내 경제복지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체계역동성을 나타내는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은 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복지감에도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가족관계가 수직관계에서 평등관계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가족응집력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도와주며 가족적응력은 여러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 권력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갖게 하여 준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적 경제복지감의 향상은 모든 사회 내에서의 중심목표이며 사회의 양상과 체제가 다를지라도 어떻게 개인의 경제복지감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로 남게 된다. 따라서 가족체계 속에서 역동성의 지표인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에 따라 취업주부가 인지하는 가정의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취업주부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또한 가정의 경제복지감은 객관적인 경제수준과 함께 주관적인 경제복지감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진정한 경제복지감의 측정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취업주부가 인지하는 경제복지감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하며 이와 더불어 부부중심의 평등사상이 평

배해져가는 한국가족에서 부부의사소통도,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주축으로 하는 가족체계역동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경제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체계역동성¹⁾

Olson, Sprenkle & Russel(1979)이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으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한 순환모델을 사용한 이후 가족체계역동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족체계는 인적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제로 구성되고 이 두 하위체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 한다.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 그리고 기능성으로 대표되는 체계역동성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촉진된다. 이는 건전한 가족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며 효율적인 체계의 공동상승효과(synergistic-mechanism)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같이 체계 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체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며 전체로서 그 자체의 발달을 갖는다(Deacon & Firebaugh, 1988; 가정관리학 연구회 옮김, 1991).

가족응집성이란 가족원간에 갖게 되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Olson등은 하위지표로 가족 공동의 시간과 가족원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친구관계, 의사결정유형, 가족과 개인의 취미 및 여가공유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인들로 측정되는 응집성은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밀착이라는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계선자, 한정화, 1997에서 재인용).

또한 순환모델에서 의사소통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두 차원을 이동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므로 의사소통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더 약화시킬 수도 혹은 향상시킬 수도 있다(Olson & Olson, 21세기 가족문화 연구소 편역, 2002). 특히 현대사회는 핵가족이 주를 이루며 핵가족의 기초는 부부관계이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역시

능적이고 원활하지 못할때는 부부관계에 심한 장애가 초래된다.

한편 가족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이나 발달에 대응하여 권력구조와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이의 측정은 가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유형, 리더십, 부모의 양육태도, 타협방식, 역할관계, 가족규칙의 융통성 등 여섯 요인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경직, 구조, 융통, 혼돈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Olson et al., 1983). 다시 말해 가족적응력은 가족 내의 권력구조와 역할관계가 갖는 상황성 및 가족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압력에 대한 가족체계의 대처능력으로 가족체계는 안정과 변화의 균형을 요구한다. Olson과 Defrain(1994)은 가족적응력을 가족구성원이 상황적·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가족적응력을 상호 주장적인 대화, 지도력의 공유, 부모의 자녀훈육법, 성공적인 역할타협, 역할의 공유 및 융통성 있는 가족규칙의 6가지 변인들로 측정하였다.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은 가족기능과 대체적으로 선형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 및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안선영, 1994)에서도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한 김명자(1992)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가족의 응집성·적응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한정화(1997)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응집력과 가족 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주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경제복지감에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직

1) 취업 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이론적 배경은 전체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연구된 자료임을 밝힌다.

지 않게 이전되고 핵 가족화 됨에 따라 가정의 중요성이 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전한 가족문화는 정신적인 행복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지표인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킴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가족체계역동성의 하위영역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 부부 의사소통도로 분류하여 이들의 변인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제복지감

McGregor와 Goldsmith(1998)는 경제복지감이란 개인과 가족원이 느끼는 경제적 안정감과 적정감의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실직, 질병, 파산, 빈곤 등의 재정관련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Walson(1991)에 의하면 경제적 복지는 전반적 복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며 개인 또는 가족원들이 인지하는 경제적 적정감 및 안전성이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강이주 등(1999)에 의하면 경제적 복지의 개념은 세 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정성(adequacy), 안정성(stability), 안전성(security)이다. 적정성은 표준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안정성은 일정한 수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성은 닥쳐올지 모르는 경제적·재정적 위기의 대처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Walson과 Fitzsimmons(1993)도 경제복지감은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적정감·안정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는 객관적 재정상태와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만족감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주관적인 가계경제복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판단하는 소득의 적정도, 총 가계소득에 대한 적정도, 저축액수에 대한 만족도, 현재 빚에 대한 불만의 정도, 현재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계 순자산에 대한 만족도, 재정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만족도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경제복지감을 측정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복지감은 개인이나 가족의 재정 적정도와 안정도의 정도를 말하며, 경제복지감은 경제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가계의 객관적 경제복지수준은 가계가 처해있는 객관적인 재정상태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소득액, 소비지출액, 총자산, 순자산, 총부채 등의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복지수준으로 측정된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상태 및 재화와 내구재 소비와 같은 변인을 사용하거나 저축·부채·순자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객관적 경제복지감을 연구하였다(Fitzsimmons & Leach, 1994).

경제복지감에 대한 주관적 복지수준은 가족이나 가계관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복지수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득적정인지, 자원적정인지, 재정적 안정도인지, 생활표준과 생활수준간의 차이 인지, 재정상태에 대한 향상감,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계선자, 유을용, 1999; 김순미, 1993; 한정화, 1997; Kerkman et. al, 2000; Parrotta & Johnson, 1998).

많은 연구자들이 가계의 복지와 관련된 평가는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인 인지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illiams(1994)은 경제복지와 생활의 질은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즉, 객관적인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동일한 재정 자원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므로 가계의 경제복지상태는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방법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제복지감의 개념은 객관적·주관적 척도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객관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정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3. 가족체계역동성과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1) 연령

가족응집성의 경우 안선영(1994)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족 적응력의 경우 김명자(1992)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부들의 가족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자, 김갑숙(1996)에 의해서도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적응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한편 연령과 경제복지감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다수의 연구에서 주부의 연령 및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적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홍향숙, 1999; Winter et. al, 1988). 반면 김연정, 김순미(1991)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정적 만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2) 교육수준

가족응집성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았으나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응집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적응력의 경우 김수연, 김득성(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계선자, 유을용, 1999; Walson & Fitzsimmons, 1993).

3) 자녀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 이미선(1995)의 연구에서는 소수자녀의 가족인 경우 가족응집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정자, 김갑숙(1996)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력의 경우도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되고 있다. 한편 자녀수에 따른 의사소통은 대부분 자녀가 없거나 적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높게 나타났다(하상희, 지금수, 1999).

4) 월평균소득

가계소득이 재정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계선자, 유을용, 1999; 황덕순, 정운용, 2001)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5) 주택소유형태

대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전세나 월세의 가계보다도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계선자, 유을용, 1999).

6) 직업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때, 다시 말해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분배에 제약을 적게 받아 재정문제의 경험을 적게 하므로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선자, 유을용, 1999; 이경옥, 2000).

홍향숙(1999)은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경우 재정만족도가 높으며 반면에 생산직일 경우 재정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주부의 취업여부와 경제복지감은 김효정(2000)에 의하면 취업한 주부일수록 전업주부 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음으로 인해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7) 생활정보활용도, 준거집단영향력, 남편의 직업안정성, 내외통제성

유을용(2002)은 생활정보활용도와 주부가 인지하는 남편의 직업안정성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밖에 주관적 변인으로 준거집단영향력과 내외통제성도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영향변인으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관적 변인), 가족체계역동성,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관적 변인)은 가족체계역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관적 변인)과 가족체계역동성은 경제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변수의 정의

배경변인 중 생활정보활용도란 가계재무관리, 물가, 주식, 세금 그리고 소비자 문제 등에 관련된 생활정보를 대중매체와 관련기관 등에서 탐색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제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준거집단영향력이란 개인이 자신의 판단, 믿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집단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남편의 직업안정성이란 남편의 현재 직업, 동료 혹은 상사와의 유대관계, 지속가능성, 보수 등에 대한 안정성 정도를 의미한다. 내외통제성은 자신의 운명을 누가 통제한다고 믿는 개념으로 내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외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운이나 기회 또는 강력한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통제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가족체계역동성의 하위영역인 가족응집성이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성원들과 어느 정도 분리 혹은 연결되어 있는 정도에 대해 주부가 느끼는 자각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적응력은 가족 구성원이 상황적,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 규칙 그리고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능력에 대하여 주부가 자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부부의사소통도는 부부간의 대화 방법, 빈도, 표현정도 등 경제문제를 포함한 가정 내·외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주부가 인지하는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종속변인인 경제복지감은 경제자원 적정감, 상대

적 만족감, 재정적 안정감 등을 의미한다. 경제자원 적정감이란 개인 및 가족의 요구나 목표달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에 대하여 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적정감 정도를 말하며, 상대적 만족감이란 친구나 이웃 등 주위사람과 혹은 과거에 비하여 우리가정의 구매활동 수준 및 경제생활수준에 대하여 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만족 정도를 말한다. 또한 재정적 안정감이란 자녀의 대학교육비, 결혼비용 및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가장의 실업,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준비금 등과 관련하여 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재정적 안정 정도를 의미한다.

3. 조사도구의 구성

생활정보활용도는 김경숙, 이정우(1993)의 연구를 참고로 총 7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α 계수는 .80이다. 준거집단영향력은 계선자, 유을용(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생활방식과 구매행동에 있어서 친구나 이웃, 친척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총 7문항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준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계수는 .80이다. 남편의 직업안정성은 Meadows(1991)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α 계수는 .93이다. 내외통제성은 Potter(1966)의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I-E) scale을 참고로 한 김혜정, 이기영(1997)의 연구를 기초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계수는 .69이다.

부부의사소통도는 Goldsmith(1996)의 연구를 기초로 관련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Cronbach α 계수는 .87이다.

가족응집성 및 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ter & Lavee(1985)가 개발한 FACEIII(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III, 1985)를 수정하여 사용한 최연실(1996)의 설문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에 각각 5점 Likert 척도의 8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84, .67이다.

경제복지감은 Rowland, Dodder와 Nickols(1985)의 연구를 기초로 강기정(1999)의 재정복지척도와 경제복지감 모델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경제자원 걱정감, 상대적 만족감, 재정적 안정감 등의 하위영역으로 총 11문항이 구성되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교육기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이며, 조사시기는 2002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254부의 응답이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자료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상관관계, Cronbach α 계수,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관적 변인), 가족체계역동성,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반적 수준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35세 이상-45세 미만(65.8%)이, 남편의 연령 역시 35세 이상-45세 미만(58.3%)이, 주부의 교육수준(46.8%)과 남편의 교육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반적 수준 (N=254)

변 인	구 분	빈 도	%	
주부 연령	35세 미만	43	16.9	
	35세 이상~40세 미만	99	39.0	
	40세 이상~45세 미만	68	26.8	
	45세 이상~50세 미만	35	13.8	
	50세 이상	8	3.1	
남편 연령	35세 미만	16	6.3	
	35세 이상~40세 미만	45	17.7	
	40세 이상~45세 미만	103	40.6	
	45세 이상~50세 미만	54	21.3	
	50세 이상	36	14.2	
주부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	5.9	
	고 졸	117	46.1	
	대 졸	99	38.9	
	대학원 이상	20	7.9	
	남편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	4.3
고 졸	88	34.6		
대 졸	107	42.1		
대학원 이상	42	16.5		
사회인구학적 변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3	13.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1	20.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2	20.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4	17.3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5	9.8
		600만원 이상	49	19.3
		주부의 직업 유형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	58
사무직	39		15.4	
자영직	60		23.6	
관리·전문직	52		20.5	
남편의 직업 유형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		33	13.0
사무직	43	16.9		
자영직	74	29.1		
관리·전문직	98	38.6		
주거 소유 형태	자 가	139	54.7	
	전 세	90	35.4	
	월 세	18	7.1	
	기 타	5	2.0	
	자녀수	0명	3	1.2
1명		22	8.7	
2명		177	69.7	
3명 이상		24	9.5	

수준(58.6%)은 각각 대졸이상인, 월평균소득은 2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40.6%)이, 주부의 직업유형은 자영직(23.6%)이, 남편의 직업유형은 관리·전문

직(38.6%)이, 주거소유형태는 자가의 비율(54.7%)이, 자녀수는 2명(69.7%)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2)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주관적 변인 및 가족 체계역동성,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변인 및 가족체계역동성,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은 <표 2>와 같다. 생활정보활용도의 점수는 5점만점에 3.21점으로 생활정보활용도가 중 이상이었다. 준거집단 영향력은 2.89점, 남편의 직업안정성은 3.04점, 내외통제성은 5점만점에 3.25점으로 내적 통제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부의사소통도,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을 포함한 가족체계역동성의 점수는 5점만점에 3.5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김연화, 이정우(2002)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하위영역 중 부부 의사소통도는 3.45점, 가족응집성은 3.82점, 가족적응력은 3.3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제복지감 수준은 2.86점으로 나타나 한정화(1997)의 3.13점, 최자령, 임정민(1996)의 4.25점보다는 다소 낮지만 계선자, 유을용(1999)의 2.76점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이다. 이와같이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사시점의 경제환경 및 경제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표 2> 주관적 변인·가족체계역동성 및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5점만점)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생활정보활용도	3.21	.77
준거집단영향력	2.89	.68
남편의 직업안정성	3.04	.96
내외통제성	3.25	.41
부부 의사소통도	3.45	.81
가족응집성	3.82	.69
가족적응력	3.39	.73
가족체계역동성	3.56	.63
경제복지감	2.86	.87

2. 도시 취업주부가계의 배경변인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배경변인이 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주부의 직업이 사무직($\beta=1.196$)인 경우와 생활정보활용도($\beta=.157$), 남편의 직업 안정성($\beta=.332$)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직업이 사무직이며 주부의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으며 주부가 인지하는 남편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높을수록 가족체계역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선자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변인별로 볼 때 주부가 직업을 가지고 있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규칙적인 사무직인 경우 가족간의 응집 및 적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부가 생활전반 및 육아와 관련된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가족체계의 활동이 더욱 증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가족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부들의 생활정보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부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실질적인 가구주인 가장의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가족간의 단합 및 적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주부자신은 물론 남편의 직업이 안정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직업안정성($\beta=.265$)으로 나타났다. 즉 이의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적응력의 경우에도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높게($\beta=.294$)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기에 남편 즉, 가장의 직업안정성은 가족의 단합과 단란을 도모하는데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측면

〈표 3〉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배경변인이 가족체계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변 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가족체계역동성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사회 인구 학적 변인 및 주관적 변인)	주부연령	-.006	-.047	.001	.009	-.006	-.051	
	주부교육수준	-.008	-.015	.064	.105	.029	.056	
	자녀수	.125	.100	-.030	-.021	.063	.053	
	월평균소득	.0001	.029	-.0003	-.068	-.0001	-.032	
	주택소유형태	-.009	-.010	.094	.086	.043	.047	
	남편의 직업 유형	사무직	.044	.028	-.212	-.118	.002	.001
		자영직	.101	.071	-.049	-.030	.109	.080
		관리·전문직	.089	.067	-.230	-.153	.009	.007
	주부의 직업 유형	사무직	.218	.131	.289	.152	.309	.196*
		자영직	.258	.177	.119	.072	.205	.149
		관리·전문직	.061	.042	.151	.091	.126	.091
	생활정보활용도	.121	.132	.072	.069	.136	.157*	
	준거집단영향력	-.036	-.037	.054	.050	-.019	-.021	
남편의 직업안정성	.180	.265**	.225	.294**	.214	.332***		
내외통제성	-.062	-.033	-.131	-.065	-.093	-.052		
상수	3.005		2.541		2.655			
R ²	.178		.130		.233			
F값 및 유의도	2.074*		1.419		2.913***			

*p<.05 **p<.01 ***p<.001

a: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1,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0으로 둔 가변수이다.

b: 주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1,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0으로 둔 가변수이다.

* 남편의 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및 가족체계역동성 중 부부의사소통도는 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결과 분석에서 제외됨.

에서 가장의 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부의 생활정보활용도와 남편의 직업안정성은 가족체계역동성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의 생활정보활용 능력을 높이는 소비자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남편의 직업이 안정될수록 가족체계역동성이 높아짐을 볼 때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으로 개인의 취업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각종 체제를 정비·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배경변인 및 가족체계역동성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배경변인 및 가족체계역동

성에 따른 경제복지감은 〈표 4〉와 같다. 월평균소득 ($\beta=.265$)과 남편의 직업안정성($\beta=.365$) 변인이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 가정의 실질적 소득의 양에 따라 주부가 인지하는 경제복지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계선자, 유을용(1999), 황덕순, 정운용(2001), 계선자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주부의 취업은 실질적인 가정경제의 향상은 물론 주부자신의 경제복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부가 인지하는 남편의 직업안정성은 가계의 경제복지감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장이 소유하고 있는 직업의 안정성은 주부의

〈표 4〉 도시 취업주부가계의 배경변인 및 가족체계역동성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경제복지감		
		b	β	
배경변인	주부연령	-.008	-.045	
	주부교육수준	.075	.098	
	자녀수	.041	.023	
	월평균소득	.001	.265**	
	주택소유형태	-.130	-.095	
	남편의 직업 유형	사무직	.059	.026
		자영직	.104	.052
		관리·전문직	-.129	-.068
	주부의 직업 유형	사무직	-.086	-.036
		자영직	-.036	-.018
		관리·전문직	.146	.070
	생활정보활용도	.094	.072	
	준거집단영향력	.027	.020	
	남편의 직업안정성	.351	.365***	
	내외통제성	.335	.126	
	가족응집력	.085	.060	
가족적응력	-.054	-.044		
가족체계역동성	.029	.019		
상수		-.249		
R ²		.478		
F값 및 유의도		7.061***		

*p<.05 **p<.01 ***p<.001

- a: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1,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0으로 둔 가변수이다.
- b: 주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1,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0으로 둔 가변수이다.

경제복지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주부들의 인식은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부 역시 직업전선의 일선에 있는 취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직업안정성은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칠 때 주부 본인의 직업은 물론 가장의 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뒷받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은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취업주부의 가족체계역동성 및 경제복지감을 연구한 계선자 등(2004)의 연구결과와 매우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비취업주부의 가계인 경우 가족간의 화합 및 적응이 잘되면 주부의 이에 따른 경제복지감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주부 가계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가족간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주부의 경제복지감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취업주부 가계의 경우에는 배경변인인 월평균소득 및 남편의 직업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경제복지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비취업주부들이 가족간의 화합 및 적응에 의해서 심리적 경제복지감을 느낀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경제복지감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가족간의 단합 및 적응에 의해서라도 주관적인 경제복지감의 향상에 기여함을 인지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심리적인 면이 아닌 실제적인 경제문제에 입각하여 경제적 요인만이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성의 척도인 가족체계역동성이 높으면 경제복지감 역시 증진될 수 있다는 비취업주부 가계의 결과와 같이 취업주부 가계라 할지라도 보다 가족의 화합 및 적응을 도모하면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이에 따른 경제복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주된 연령층은 35세이상-45세 미만으로 65.8%이었으며 남편의 연령은 35세이상-45세미만이 58.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주부의 46.8%, 남편의 58.6%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월평균소득은 87%가 200만원이상 이었다. 생활정보활용도는

중 이상이었고, 내적 통제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준거집단영향력 및 남편의 직업안정성도 중이상의 성향을 보였다. 즉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이 높은 경향이 이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믿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계재무관리 및 물가, 주식, 세금 등에 관련된 생활정보를 대중매체와 관련기관에서 탐색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제 활용하는 정도가 중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준거집단영향을 대체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남편의 직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중 이상이었다.

둘째, 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직업안정성으로 가장 의 직업이 안정될수록 가족간의 화합 및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부 자신이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의 화목과 단란을 위하여서는 가장의 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은 물론 사회적·국가적 차원으로 위협수위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여 개인의 취업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부가 생활전반 및 육아에 관련된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부들의 생활정보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소비자 정보 제공 방안 마련과 정보활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자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취업주부가계의 월평균소득과 남편의 직업안정성은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원은 가계의 고정적인 수입의 확보 및 가장의 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취업주부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은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 가계의 경우에는 배경변인인 월평균소득 및 남편의 직업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경제복지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부의 생활정보활용도는 가족간의 화합 및 긍정적 적응을 초래하여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주부들의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국가적 차원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활용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생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제공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제복지감의 향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남편의 직업안정성임을 볼 때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취업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의 직업안정이 근간이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한 실업대책 및 취업유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기정(1999).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강이주, 김영신, 허경옥(1999). 가정경제학의 이해. 학지사.
- 계선자(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49.
- 계선자, 강혜경, 유을용(2004).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 및 경제복지감. 대한가정학회지, 42(12), 205-218.
- 계선자, 유을용(1995). 신세대 주부의 외국상품에 대한 선호도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10, 27-48.
- 계선자, 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59-78.
- 고정자, 김갑숙(1996).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

- 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국민일보, 2004년 5월 29일자
- 국민일보, 2004년 8월 5일자
- 김경숙, 이정우(1993). 취업주부의 객관적·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성,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35.
- 김수연, 김득성(1994).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김연정, 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김혜정, 이기영(1997).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 17-26.
-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 박미금, 계선자(1994).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06-117.
- 세계일보, 2004년 8월 10일자
-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79-91.
- 유을용(2002). 도시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중류층 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대처행동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2.
- 이정우, 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4.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연실(1996).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최자령, 임정빈(1996).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 하상희, 지금수(1999).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 및 수행도와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7-33.
- 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숙명여자대박사학위논문*.
-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 정운영(2001). 재무태도와 재무 의사소통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9(8), 121-134.
- Fitzsimmons, & Leach, L. J. (1994). Net worth change: Beginning and Expanding life cycle stag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65-82.
- Kerkman, B. C., Lee, T. R., Lown, J. M., & Allgood, S. M. (2000).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problem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recently married university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1(2), 55-64.
- McGregor, L. T., & Goldsmith, E. B. (1998).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quality of life, standard of living,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Summer, 2-6.
- Olson, D. H., DeFrain, J., & Olson, A. K. (1999). Buildig Relationship Developig Skill for Life, 21세기 가정문화연구소 편역(2002).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서울; 양서원.

Olson, D. H., & Portner, J. (1983).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University of Minnesota.

Parrotta, J. L., & P. J. Johnson. (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Walson, C. O. (1991). Determinants of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An analysis of a

composite measure. University of Illinois. Ph. D.

———, & Fitzsimmons, V. S. (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

Williams, F. L. (1994). Economic well-being: A five-star approach.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2, 17-21.

(2004년 9월 30일 접수, 2005년 5월 10일 채택)

<부 록>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주부연령	1														
2. 주부교육수준	-.022	1													
3. 자녀수	.316***	-.127	1												
4. 월평균소득	.064	.523***	-.068	1											
5. 주택소유형태	-.103	-.175**	-.023	-.328***	1										
6. 남편의 직업유형	.120	.373***	.008	.283***	-.168**	1									
7. 주부의 직업유형	.067	.499***	.043	.432***	-.267***	.506***	1								
8. 생활정보활용도	.051	.111	-.075	.137*	-.152*	.141*	.035	1							
9. 준거집단영향력	-.052	.051	.064	-.004	.032	-.022	-.036	.031	1						
10. 남편의 직업안정성	-.107	.359***	-.148*	.488***	-.287***	.308***	.287***	.180**	-.040	1					
11. 내외통제성	.221***	-.121	.159*	.012	-.043	-.079	-.063	.033	.074	-.061	1				
12. 가족응집력	-.098	.121	.040	.202**	-.133*	.046	.170*	.233***	-.026	.315***	-.116	1			
13. 가족적응력	-.108	.111	-.024	.072	.020	.066	.076	.192**	.039	.272***	-.162*	.560***	1		
14. 가족체계역동성	-.128	.169**	-.018	.194**	-.072	.105	.168*	.259***	.002	.406***	-.141*	.884***	.791***	1	
15. 경제복지감	-.086	.391***	-.191**	.563***	-.327***	.286***	.361***	.237***	-.016	.634***	-.005	.275***	.180**	.305***	1

*p<.05 **p<.01 ***p<.001